

風水地理學說의 理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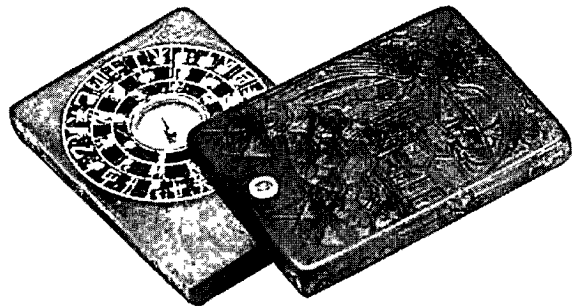
金澤洙



1. 머릿말

우리 인간사회에서 희비(喜悲)간에 예기치 못한 돌발사건이 간혹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큰 인물이 갑자기 몰락되거나, 또는 갑자기 돌발 부상(浮上)이 있게 되면, “그건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 거나, “그건 분명히 그 조상묘지의 명당운세가 발복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지난번 대선 때에도 노무현후보가 세간의 예상을 깨고 이회창씨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전국의 풍수지관(?)들이 어김없이 김해시 진영땅 노대통령의 태생지에 몰려들어 그건 집터가 좋아서이다. 아니다 묘지가 어떠해서다. 저 바위덩이가 복덩이다. 아니다 저건 분명히 흉물로 작용할 것이다. 갖가지의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벌써부터 전해지고 있다.

우리 인간들이 사는 지구촌의 곳곳에서는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나라나, 종족(種族)마다 방법과 형태는 다르지만 무속(巫俗)이나 미신(迷信)이 없는 사회는 거의 없다. 엄밀히 말을 하자면 몇 백만의 신도를 거느린 큰 종교 집단이나, 몇 십 명의 소수의 신도를 가진 종교도, 모두 이 미신의 범주(範疇)에 속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죽은 사람의 장사를 치르는 방법도 그 나라나 종족에 따라 각기 다른 풍습으로 치러진다. 아시아 내륙 어느 종족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나무 가지나 높은 바위 위에 올려놓아 조수(鳥獸)들이 살붙이를 물고 하늘을 날므로 써 그 주검의 영혼도 새들과 함께 하늘을 날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믿는 조장(鳥葬)을 치르는 종족도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의 여러 고대 무덤에서 금은 보물들이 출토되고 있는 것은, 죽은 자들의 저승세계에도 영혼의 세계가 있어 그곳에 가서도 향락을 누리려 하는 뜻으로 무덤에 넣어 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나라와 종족마다 그들의 풍습과 신앙에 따라 방법과 형태도 다양하게 치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주검 뒤에는 영혼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옛날에는 주로 죽은 자를 위하여 장례 문화가 이루어져 왔으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 후손들이 복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어떻거나 지금 우리들 주변에서는 위선(爲先)을 한답시고 비좁고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마구 훼손하고 있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장례문화는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게 현실이다. 지혜를 모아 좋은 방법들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풍수지리설에 어울리는 말인 듯하다. 비록 천견이나 이를 판단하는데 다소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風水地理學의 起源

풍수학은 고대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산의 모형(山形)이나 물의 흐름(水流)등의 자연 현상이 우리 인간 생활의 화복(禍福)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 원리를 바람(風)이나 물(水)이나 지형(地形)의 이점(利點)을 인간

생활에 활용하려고 한 것이 풍수학의 첫 걸음이라 볼 수 있다.

옛 진(秦)나라 때에 주선도(朱仙桃)라는 사람이 풍수학을 연구하여 수산기(搜山記)라는 책을 편술 하였는데, 이 수산기가 신통하게 적중하므로, 시황제(始皇帝)는 이를 세상에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황실 관계에만 이 비결을 인용하도록 엄명을 내렸다. 이유는, 이 비결을 인용하여 제왕이 나올 명당 자리에다 일반인이 묘를 쓰면 왕통이 끊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한(漢)나라 때에는 청오자(靑鳥子)라는 사람이 청오경(靑鳥經)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황실 관계에만 적용되었을 뿐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한다.

“풍수(風水)”라는 용어는 중국의 곽박(郭璞, 276-324)이 쓴 『장경(葬經)』이 처음이다. 이 풍수라는 말은 장풍득수(藏風得水)를 줄인 용어이며 “바람(風)을 가두고 물(水)을 얻는다”라는 의미이다. 이어 당(唐)나라에 이르러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양구빈(楊救貧), 장일행(張一行), 유공(庾公), 여동빈(呂東賓), 곽임종(郭林宗)등 대가들이 나와 더욱 연구하여 실용화시켰다. 특히 일행선사(一行禪師)는 우리나라 도선국사(道詵國師)의 스승이라는 말도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풍수지리학설이 도입된 것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고대 왕들의 무덤형태와 역사의 기록들로 미루어 중국이나 거의 같은 시기에 풍수설을 적용하여 오다가 신라 말의 명승 도선국사 이후로 널리 행하여 졌다. 도선은 전남 영암의 한 미혼모에서 태어났으며 속명(俗名)은 옥룡자(玉龍子 827~898)이고, 속성(俗姓)은 최씨(崔氏 또는 金氏)로 많은 일화를 남겼으며, 신라가 멸망할 무렵, 송악(松岳=開城)에 고려 태조 왕건(王建)의 아버지 용건에게 집터 “송악궁”을 잡아주면서, 왕건의 탄생과 고려의 건국을 예언해 주기도 하였으며, 그의 풍수지상법(風水地相法), 지리결록(地理訣錄)등은 고려와 이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옥룡자결록(玉龍子訣錄)이라는 책명으로 전해지며 우리나라의 풍수신앙에 크게 영향을 준 사람이다.

이어서 고려말기에 무학대사(無學大師)는 속명이 박자초(朴自招=1327~

1405)로서 이태조의 부름을 받고 한양(漢陽=서울)을 이조 오백년의 도읍지로 정해준 사람이며. 그후 태종 때 영의정을 역임한 하륜(河崙), 성종때의 서거정(徐居正). 그리고 남사고(南師古), 이지함(李之함), 이중환(李重煥), 정감(鄭鑑)등이 풍수대가(風水大家)로 전해지고 있다. 그밖에도 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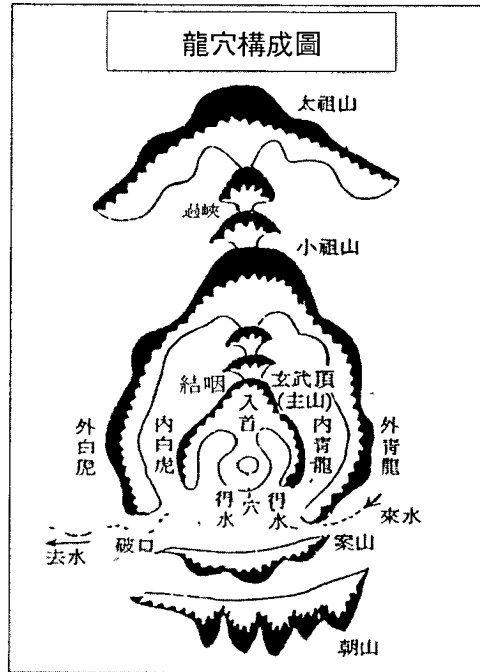
이들 가운데 격암(格庵) 남사고는 명종 때의 사람으로 풍수, 천문, 복서, 상법(相法)에 두루 통달하여 예언자로 유명하였으며, 이지함은 선조때 사람으로 토정비결(土亭秘訣)을 저술한 사람으로 유명하고. 정감은 정감록(鄭鑑錄)의 저자이며, 이중환은 영조때의 실학자(實學者)로 택리지(擇理誌)를 저술하였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육관(六觀) 손석우(孫錫佑)씨가 “터”라는 책을 발간하고 금대(今代)의 큰 사건들을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과 연관하는 많은 예언들이 적중을 거듭하므로 유명해 있다.

3. 風水地理學說의 理論

우주의 모든 만물은 음(陰)과 양(陽)의 조화(調和)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존재가 가능한 것이며, 그 음과 양의 조화(造化)에 의해서 구현(具現)된 것이 물상(物象)이며 그 물상이란 하늘(天空)에 있어서는 일(日), 월(月), 성(星=큰별), 수(宿=적은별무리)를 이룸이요, 땅 위에 있어서는 산(山),택(澤), 원(原), 야(野)를 이룸이요, 또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관(五官)과 사지(四肢)가 그것이다.

이렇게 천상(天象), 지상(地象), 인상(人象) 모두는 천지간(天地間)의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의 조화(造化)와 변화(變化)의 작용에 의해서 물체가 생성(生成)되고 구현(具現)이 이루어지며, 이것들(萬物)은 우주 대자연의 기(氣=아래 “氣” 항목)의 힘에 의해서 존재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천(天), 지(地), 인(人)을 삼재(三才)라 하며 이들 삼체(三體)의 근본된 이치를 하나의 이치(三才一致)로서 사무쳐 보아왔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 1)의 : 천체(天體)에는 360도수(度數)가 있어 360일의 밤과 낮이 생기고 일력(日曆)이 형성되며, 춘하추동(春夏秋冬)의 사계절(四季節)이 운행을 하고, 천공(天空)에는 일, 월(日, 月)과 지구(地球), 그리고 오성(五星=산의 형태를 木, 火, 土, 金, 水의 다섯 모양으로 구분함.)과 크고 작은 수 만개의 별들 수(宿=별들의무리)가 존재하며,

그 2)의 : 인체에는 골격과 근육을 흐르는 경락(經絡)과 360개의 경혈(經穴)이 있고, 안으로는 오장(五臟)과 육부(六腑)를 담고, 아홉 구멍(九口=耳, 目, 口, 鼻, 前, 後陰)과 살 갯에는 수만 여 개의 땀샘(汗泉=잘은 모르겠으나 8만수천개라고함)이 있다.

그 3)의 . 지구는 360도의 경위도(經緯度)로 나누어져 오대양 육대주로 지구를 형성하여 산과 강과 평원을 이루고 모든 산자락에는 맥락의 흐름인 용맥

(龍脈)과 수맥(水脈)이 있으며 360곳의 경혈(經穴)은 천장지지(天藏之地)의 대혈(大穴)이요, 그밖에 크고 작은 중혈(中穴) 소혈(小穴)은 인체의 땀구멍 수만큼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모두 싸잡아서 다시 형기론(形氣論)과 이기론(理氣論) 두 가지의 학설로 크게 분류한다. 즉 하나는 산과 물의 외적인 모양을 보고 좋은 명당을 찾는 것이 형기론이고, 또 하나는 방위와 시간의 개념으로 천기(天氣)와 지기(地氣)의 음양오행(陰陽五行)을 살피는 것이 이기론(理氣論)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의 형기법(形氣法)이란 사람에 비유하자면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운명의 길흉을 판단하는 관상학, 사상의학(四象醫學)등이 이 형기법에 속하고, 풍수학에서는, 용(龍=산 줄기의 기복을 가리키며 마치 그 모양이 용과 같다는 데서 유래), 혈(穴=생기가 뭉쳐있는 곳), 사(沙=혈의 전후 좌우에 있는 산과 물)와 오성(五星=산의 모양을 木, 火, 土, 金, 水의 다섯 가지 모양에 비유함), 수(水=물)등 그밖에 그 묘지를 구성하는 밖으로 보이는 형체들이 지니는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길흉을 판단하는 이른바 형세론(形勢論)을 말함이며.

두 번째의 이기법(理氣法)이란 사람의 사주(四柱=생, 년, 월, 일)로서 음양오행이나 오운육기(五運六氣)등을 적용하여 그 사람의 성격과 운명과 질병의 원인등을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풍수학에서는 나경(羅經=풍수지리용 나침반)의 원리를 이용하여 그 묘지의 용(龍)이나 혈(穴), 사(砂), 수(水=물의 흐름)의 방위를 측정하여 음양과 오행법(陰陽五行法)에 의해서 길흉을 판단하는 이른바 좌향론(坐向論), 득파법(得破法=혈이나 명당의 내부에서 솟아, 그 주변을 지나 바깥으로 흘러 나가는 물의 흐름이다. 솟아나는 부분을 득(得)라 하고, 흘러 나가는 부분을 수구(水口) 또는 파구(破口)라 한다), 포태법(胞胎法)등이 이 이기법(理氣法)에 속한다. 다시 말하여 형기(形氣)는 외적 형상인 체(體)이고, 이기(理氣)는 작용인 용(用)으로서 이들을 서로가 다른 방법의 이론이라 할지라도 별개로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이론들을 우리 인간의 운명과 연관지어 관찰하고 길흉을 점치는 방법을 체계화시킨 학문이 지상학(地相學) 또는 풍수지리학으로써 이 근본 원리들은 다 천지 음양오행법과 주역(周易)에서 나온 이치들이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아주 먼 옛날부터 이 천, 지, 인(天,地,人)의 삼체(三體)를 하나의 테두리(宇宙) 논리로서 사무쳐 보아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수지리학설을 부정하려면 동양의학, 침구학, 사상의학, 관상학, 운명학 등 동양철학을 응용하는 모든 논리들을 함께 부정하여야 옳을 것이다.

4. 明堂과 發福說

옛말에 “비지령(非地靈)이면 무이종인걸(無以種人傑)이요, 비인걸(非人傑)이면 무이현지령(無以顯地靈)이라” 이르니 이 말은 땅의 령기(靈氣)가 아니면 인걸(人傑)이 태어나지 않으며, 인걸이 없으면 땅의 령기가 발현됨이 없어서이다”라는 뜻이다. 실제로 고금에 걸쳐 부귀 영걸(英傑)들을 많이 배출한 가문이나 마을은 살펴보면 예외 없이 조상을 좋은 명당(明堂)에 모셨거나, 그들이 태어난 마을의 산수가 빼어나거나 이렇게 음택(陰宅)이건 양택(陽宅)이건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갖추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면서 다들 똑같은 환경에서 같이 노력하고 같은 일을 하여도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불운이 따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력에 있어서는 뒤지는 편이지만 꺾이는 일마다 기대 이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성공(成功)을 일군 사람을 조상의 음덕(蔭德)을 입은 사람, 또는 발복(發福)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

풍수지리학의 화복론(禍福論)에 “조상과 자손은 서로 기운(氣運)을 같이 하는 동기(同氣)의 사이기 때문에 저쪽이 편안하면 이쪽도 편안하다”라는 “부조자손동기피안즉차안(父祖子孫은 同氣니 彼安則此安이라)”하는 귀(句)가 있는데 이 이치(理致)를 동기감응설(同氣感應說), 또는 친자감응설(親子感應說)

이라 하며, 그 이론(理論)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람은 그 조상과 후손사이에는 반드시 서로 같은 유전인자(遺傳因子)를 가지고 있듯이 인간과 땅 사이에도 서로 정기(精氣)를 통(通)하게 해주는 기(氣=에너지)가 존재하며, 이 기(氣)는 같은 성질의 기(同氣)끼리 어떤 감응(感應)작용을 일으킨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하자면 기(氣)¹³⁾라 하는 것은 우주(宇宙)의 본원(本源)으로써 우주 가운데 만물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없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無所不在)의 것이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기(氣=에너지)를 지녀야만 존재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 기에는 서로 고유의 파장(波長)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파장끼리 반응하려는 특성이 있다. 비록 유골(遺骨)이라 할지라도 영혼(靈魂)을 함께 하는 한 어떤 기를 가지고 있다. 이 영혼이 지나는 기는 자신과 같은 동기(同氣)의 유전인자를 가지는 자손들에게 감응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라디오나 TV는, 방송국에서 방송되는 주파수와 같은 채널을 지닌 수신기로만 수신이 가능하듯이 묘지에 묻힌 조상도 동일한 유전인자를 가진 그 자손에게 감응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 즉 화복설(禍福說)의 논리(論理)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이 좋은 묘지에 묻히면 좋은 령기(靈氣)를 발휘하여 그 자손들의 두뇌에 기분 좋은 작용을 일으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고,

13) 《기(氣)란?》 큰 의미로부터, 하늘(天)은 가볍고 맑은 기(氣)가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지구(地)는 무겁고 탁한 기(氣)가 뭉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가볍고 맑은 기(氣)는 양(陽)이며, 무겁고 탁한 기(氣)는 음(陰)이니, 하늘(天)은 양기(陽氣)가 모인 것이며, 땅(地)은 음기(陰氣)가 모인 것인데, 하늘은 양기(陽氣)를 내어 땅의 기운(地氣)을 끌어올리고, 땅(地)은 음기(陰氣)를 내어 하늘의 기운(天氣)을 끌어내린다 이것을 천지의 승강운동(升降運動) 또는 기교(氣交)라고 한다 이 기교의 과정에서 조 습(燥濕)과, 풍 우(風雨)와, 온 한(溫寒)의 기후가 발생하고 절서(節序)의 운행(運行)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시작되는 기(氣)는 우주만물의 원질(原質)로서 숨(息) 힘(活力) 정기(精氣) 생기(生氣)등으로 조화(造化)를 일으키는 힘(에너지)의 역할을 한다 풍수설에서의 기(氣)는 운행(運行)을 하되 정(靜)할 때와 동(動)할 때가 있는 것인즉, 머물러 정(靜)할 때를 음기(陰氣), 움직(動)이고 있을 때는 양기(陽氣)라 하며 기(氣)가 룡(龍)과 맥(脈)으로 흐름을 기세(氣勢) 또는 생기(生氣)라 하며, 생기(生氣)가 흐르다가 응집되어 머무는 곳을 혈(穴)이라 하는데, 이 혈의 요묘한 섭리를 밝혀내는 이론이 풍수지리학이다 필자는 지진(地震)이나 화산(火山)의 휴 활(休活)도 크게는 기(氣=에너지)의 작용으로 일어난다고 본다 그리고 묘지에서 기(氣)의 존재를 확인하려면 우선 재대로 자리잡은 묘역의 중심(穴)에 한번 서 보라 만일 안정감과 훈훈하고 명량한 령기(靈氣)의 느낌이 없고, 찬바람이 일면 좋은 자리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느낌을 주는 것은 기(氣)의 조화이다

바른 곳으로 인도하며, 번성하도록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묘지가 발귀(發貴)의 형국을 지니는 명당이면 귀를 배출해 줄 것이고, 발부(發富)의 형국을 지니는 명당이면 부를 배출해 줄 것이오, 장손에 이로운 형국이면 장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반면에 불길한 형국이면 나쁜 기를 발산하여 그 자손이 불길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유전인자의 근사치(近似值)가 가까운 직계(直系)일수록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비교적 감수성이 많은 어린이들이 강하고, 근사치가 멀고 나이가 들수록 약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어느 역술가(易術家)의 설명에 의하면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① 사주팔자(四柱八字) 35%, ② 자기노력(自己努力) 30%, ③ 환경(環境) 15%, ④ 관상(觀相) 15%, ⑤ 이름(作名) 5%에 할당하는 역할로서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주장한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자기의 노력, 환경, 작명 등은 인위적(人爲的)인 선택으로 가변성(可變性)이 주어지지만,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사주팔자와 관상만은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절될 수 없는 절대적 운명(運命)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좋은 사주팔자와 관상을 지니고 태어나려면 역시 좋은 명당에 조상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아닐는지?

5. 明堂을 求得할 資格.

그러나 명당이란 아무나 원한다고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로부터 큰 명당자리는 천장지비(天藏地秘)라 하여 평소에 덕(德)을 많이 쌓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런 큰 명당은 하늘로부터 미리 임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조선 명조시대에 철인(哲人)이며 명지사(名地師)인 격암(格庵) 남사고(南師古=1509~1575)라는 사람은 일찍이 주역(周易)등 많은 책들을 읽어 천문

지리(天文地理)를 통달하여 동서분당(東西分黨=선조8년)을 예언하여 주었으며, 그는 당대에 수많은 예언들을 적중시켰고, 격암일고(格庵逸稿)등 여러 권의 저서도 남겨 오늘날까지도 풍수대가로 명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 남사고는 그의 어머니께서 노령으로 돌아가시자 미리 점찍어 두었던 자리에 장례를 마쳤다. 그는 다음에 성묘를 드리러 찾아와서 자세히 살펴보니 명당이라 하기에는 아무래도 실수가 있었다. 고심 끝에 다른 자리를 구하여 이장을 마치고, 다음에 와서 자세히 살펴보니 또 실수를 범 하고 말았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만 했다. 이렇게 하기를 아홉 차례나 이장을 거듭하였다.

드디어 최종적으로 용(龍)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이라 하는 비룡상천형국(飛龍上天形局)의 대지를 구하여 어머니 유골을 안장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었다. 이 때에 길가에 밭을 갈고 있던 한 농부가 노래 부르기를 『구천십장(九遷十葬=아홉 번을 옮기고 열 번째 장사하다) 남사고야! 비룡상천 좋아 마라! 그곳은 고사괘수형국(枯蛇掛樹形局=죽은 뱀을 나무에 걸쳐놓은 형국)이 아니드냐!』라고 노래하거늘 남사고는 가만히 노래 소리를 듣다 깜짝 놀라 뒤돌아서 다시금 형국을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옳은 말이었다. 급히 농부를 찾아 보려하니 홀연히 사라지고 없었다.

남사고는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대지는 반드시 그 주인이 정해져 있는 법이니 평소에 덕(德)을 쌓은 적이 별로 없으신 어머니를 애써 명당에 모시려고 해도 그것은 나의 욕심이지 명당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그가 간절하게 바랬던 바를 버리고 평범한 무해지지(無害之地)를 찾아 이장하여 드렸다고 한다.

예로부터 명당이란 3대가 적선지가(積善之家)라도 얻기 힘들다. 라고 말한다. 그만큼 얻기 어렵다는 말이다. 명당을 얻으려하면, 첫째로 덕(德)과 선(善)을 부단히 쌓아야 한다. 오른손이 선(善)을 베풀고 있어도 왼손이 몰라보는, 진실(眞實)의 자비(慈悲)가 쌓이고 쌓여서 감천지경(感天之境)이면 자연스레 명당으로 인도(引導)되리라는 것이다.

지난번 대선을 몇 년 앞두고 DJ씨는 용인 땅에 육관(六觀)의 알선으로 선영을 이장하고 당시 시중에서는 구설이 많았었는데, 그 후 DJ씨는 대망을 이루어냈다. 과연 발복을 한 덕이었을까? 우연의 일치였을까? - 최근에는 역시 평생동안 대권에 매달려오던 한분은 충청도 땅 어느 군왕지지(君王之地)?에 선영을 이장해 드렸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선산에 장식한 석물에 억눌려 발복이 어렵겠다하여 살짝 치워버려 장안의 화젯거리가 된 적이 있다. 지금 이처럼 이 땅위에는 위선(爲先)을 빙자삼아 명당에서 발복(發福)이 용천하기를 꿈꾸는 위선자(僞善者)들이 위아래의 구별이 없다. 때문에 경건히 받들어야 할 조상의 혼령을 욕보이고, 풍수설이 잘못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옛 경구(警句)에 이르기를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너무 가까이도 말며, 너무 멀리도 하지 마라.)하라. 하였는데, 이 말은 풍수지사(風水之事)를 두고 하는 말이려니.

《참고자료》 風水思想의 理論과 實際(최창조). 八十八向眞訣(金明濟). 地理五訣(申坪譯). 韓國地理總攬. 雲亭古稀集(朴鎮東). 大邱청송철학원. internet. 資料. 外-

(대원한약방)

《참 고》

- 1) 화장제도를 선호하는 나라= 네덜란드 98%, 일본 97%, 홍콩 72%, 영국 69%, 스위스 67% 이고, 매장 선호하는 나라= 프랑스 81%, 미국 88%, 대만 82%가 선호한다 화장을 선호하는 나라는 국토가 해저에 위치한 네덜란드나, 국토가 비좁아 여유가 없는 나라들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 2)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0년 1월 13일자로 발효 사실묘지 설치면적 기준을 개인묘지의 경우 30㎡이하, 가족묘지는 100㎡이하, 종중 및 문중묘지는 1,000㎡이하로 제한 화장장, 납골시설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도시계획법상 주거, 상·공업지구도 설치가 가능